

#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대장정'

###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 전주·정읍·남원 등 6곳서 지역 특성 맞춤형 소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진로·진학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방향성과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학부모와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급변하는 진로·진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달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진로·진학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진

표 와이즈멘토 대표, 윤운구 EBS1 임시 대표 강사(한양대사범대부속고), 정제원 EBS1 임시 대표 강사(송의여자고) 등 전국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전북 대입진로진학지원단, 학부모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진로·진학 정보 공유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거쳐 그 결과를 토크콘서트 일정에 반영했다. 토크콘서트에 내용은 △4차 산업혁

명시대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의 방향 △현명한 학생부 설계 및 관리 △지역인재 전형 대입 준비 △폭소리 나는 고교학점제 대비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년간 진로·진학 지도를 해온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8월 31일 전주(전주대 J아트홀) △9월 21일 정읍(정읍사 예술회관) △10월 5일 남원(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10월 12일 진안(진안문화의집 마이홀) △10월 26일 익산(익산대 프리미엄 컨퍼런스룸) △11월 9일 군산(군산대학교 제1학생회관 고촌관홀)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부터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비주요존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진로의 방향'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특강을 들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진로·진학 토크콘서트는 진로·진학 정보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S등급'

### 전북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 달성 인센티브 128억 등 사업비 254억 확보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선택권 강화 등 호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4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 등의 학생중심의 학사구조 유연화와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교과목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국 37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별 자율적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교육혁신 계획 평가에 이어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교육혁신 계획 평가에서도 전북대는 최고 등급을 받아 7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2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올해 역시 전북대는 최고 등급 평가를 통해 12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총 254억 원의 사업비로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및 지역사회 상생발전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를 통해 최근 2년간 500억원 가량을 교육개혁이 투입하게 되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함께 능동적 교육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생 전공선택권 강화 등 학사구조의 유연화와 체계적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교과목 운영, 평생지도교수 및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상담, 대학별 적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다면적 학생 지원 체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대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106개의 모집단위를 46개로 전면 광역화하고, 모집정원 4,054명 중 3,080명을 융합자율전공학부, 단과대학별 계열모집 등 무전공으로 선발함으로써 미래사회 융합형 인재 육성의 기틀을 다졌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전북대만의 교육혁신 방향이 이번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S등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북대의 교육 혁신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제3차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오후 5시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감을 포함해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 부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청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별 추진 실적,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추진 실적 등을 보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영역 중 청렴노력도 영역 총 12개 지표 추진 실적을 중점 점검했다. 청렴노력도 영역으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기관장(교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공연형 청렴 교육, 갑질 근절 감사시스템 운영, 취약분야 특정 감사, 안심 변호사제도 운영,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한 청렴 리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면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12일 오후 5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책임·존중·세계시민성 수업... 인성교육 강화

### 전북자치도교육청, 인성 프로그램 제작... 단위 학교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수업 시간에 바로 쓰는 인성 프로그램을 제작, 단위 학교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책임·존중(배려)·세계시민성의 3대 핵심 덕목과 8개 하위 요소 등 목표 체계를 정비해 '더 특별한 전북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든 소속기관에 안내한 전북교육청은 이번 자료 보급을 통해 인성교육의 수업 연계성과 인성 가치의 실천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는 다

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덕목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바른 인성을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약점·흥미·능력을 파악하고 개인적 목표를 설정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른 인성 프로그램 단원은 전북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인 책임, 존중(배

려), 세계시민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관심갖기·집중하기·탐구하기·성찰하기의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수업 시간에 적용 가능한 핵심 덕목별 활동지도 포함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수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성교육을 통해 웃음이 있는 학교 풍토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전북 3대 핵심 덕목 중심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우석대, 플라토브 무키딘 에감베르비치 총장 석좌교수 위촉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플라토브 무키딘 에감베르비치(Pulatov Mukhidin Egamberievich) 사마르칸트경제대학교 총장을 석좌교수에 위촉했다.

12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석좌교수 위촉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플라토브 무키딘 에감베르비치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타슈켄트경제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플라토브 무키딘 에감베르비치 총장은 100여 권의 경제 관련 교육교재 개발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방향과 제도 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한 그는 우석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마르칸트 세종학당 최종 지



정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 대학의 동반자 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플라토브 무키딘 에감베르비치 총장은 우석대학교 국제교류원과 함께 국제 경제학 관련 연구와 기초 교양학문 발전을 다지는 한편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